

“결혼식 비용 걱정마세요” 나주시, 공공결혼식 문의 쇄도

목사내아·영산강정원·나주정미소 등 일일 예식장 대관
하객석·음향 등 설치 및 꾸밈비용 현금 100만원 지원

나주시가 지역 명소를 활용한 공공 결혼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의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 결혼식 비용 급증에 따른 ‘웨딩 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예식장 대관은 물론 꾸밈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예비부부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공공 결혼식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나주목사내아, 영산강정원, 나주정미소 등을 일일 예식장으로 조성해 무료로 대여한다.

하객석과 무대 단상, 음향, 포토존, 버진로드, 가족스토리 영상 제작, 축하 공연 등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식에 필요한 시설과 콘텐츠도 제작해준다.

여기에 웨딩 메이크업 등 꾸밈비용 100만원을 현금으로 별도 지원한다. 지난 4월 21일 나주목사내아에서 첫

번째 결혼식이 열려 하객들의 축복 가운데 제1호 공공결혼식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다.

시는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비롯해 예비부부의 취향에 맞춰 공공결혼식 웨딩홀 장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비용 부담은 낮추고 행복을 올릴 수 있는 공공결혼식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인 결혼이 부담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결혼식 신청 문의는 ‘나주시 가족센터’로 유선, 방문하면 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신안군 암태면,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 전달

신안군 암태면은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을 전달했다.

관내 25개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에서 음식,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안부를 챙겼다.

암태면 부녀회원들은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모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통처럼 지켜져 나갈 것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천수 주민자치위원회장은 “암태면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력과 송고한 뜻을 늘 가슴속에 담고 살지만 쉽게 표현하지 못했다”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일 년 중 하루라도 감사의 마음 표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따뜻한 암태면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소감도 함께 밝혔다.

탁관철 암태면장은 “매년 숭선수범하여 어르신들께 사랑과 나눔을 전해주시는 암태면 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지역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없는 암태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무안군 삼향읍 지사협, 홀몸 노인 이불 지원 사업 실시

취약계층 30가구에 따뜻한 온기 전달



무안군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은영, 양성문)는 최근 취약계층 홀몸 노인 30가구를 대상으로 ‘홀몸 노

인 따수미(이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낡고 오래된

이불을 교체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선물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하는 복지 지원 활동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새 이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피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저소득 가정 집수리 사업’ 등 6개 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어르신 가정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관리 돌입

치과 의사 관리계획 세워 서비스

영암군보건소가 이달 7일 확산면 상월 경로당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방문 구강건강 관리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의 관련 공모 선정

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구강건강에 문제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발굴·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영암군은 마을 경로당 등을 돌며 발굴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한 어르신의 가정

을 찾아가 보건소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 상태를 보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교육·불소도포·치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